

言論人養成과 大學敎育

金 景 根

(高麗大 新聞放送學科 敎授)

I. 머리말

1954년 이래 대부분의 종합대학들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전문언론인을 교육시키고 양성하기 위하여 신문방송학과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현재 15개 대학에서 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문방송학과의 설립이 활발하였던 60년대 중반에는 유능한 전문언론인을 양성할 것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직업교육을 위한 관점에서 교과목이 운영되어 왔으나 교육받은 신문방송학도들의 언론계 진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방송학은 직업교육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론 연구로 점차 교육내용이 바뀌어졌고, 본래의 학과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언론계로의 진출은 언론인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직업 윤리관, 사명감, 자질 등 보다는 시사상식, 문장력, 외국어 지식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바로 이것이 신문방송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그리고 비록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은 신문방송학도들일지라도 언론계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한마디로 언론기관의 선발기준은 대학 안에서 전문 언론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언론기관의 타성 때문에 전문언론인이 되기 위한 예비 언론인들은 입학 후 얼마 안가서 전문지식이나 전문교육성취에 불두하기 보다는 세상 잡일에 관한 상식 주입과 영어 단어 암기에만 몰두하게 된다.

II. 언론계의 인력선발 방식과 문제점

정신적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인 가운데서 언론인이야말로 어느 다른 직업인 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인간의 정신문화 생활과 사회교육을 이끌어 가고, 정보의 유통을 조정하고, 여론을 형성할 뿐 아니라 인간을 비롯하여 사회와 국가까지도 비판하고 감시하며 통제 내지는 조정까지 하는 公人的 임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정치이념 개발과 그의 실현에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막중하고 공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업인이라면 마땅히 업무수행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공인된 자격을 부여받아 公人的 사명감을 갖고 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언론인은 어느 다른 직업인 보다도 직업 윤리관, 사명

감, 전문지식, 책임감, 국가관 그리고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소양과 재질을 모두 겸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은 높은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받은 이들에 의하여 그 사회의 언론이 조정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전문언론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들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한국에 있어서 언론계의 인력수급 방식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채와 일반 공개채용이 있다. 여기서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거의 없고 선발하는데 필요한 평가기준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영어실력, 상식, 문장력과 면접을 통한 표현력과 의도 등에 국한된다. 이러한 선발방식은 언론계 나름대로 지켜 내려오고 있는 오랜 관습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소극적이고 낙후된 방식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해당 직종과 분야에 대한 기본적 재질과 확고한 직업 윤리관과 사명감을 고루 겸비한 전문직업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인력수급도 이러한 맥락에서 실시하고 있다.

언론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을 신문방송학 전공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언론매체가 취급하는 내용들이 다양한 만큼 언론인의 출신과 구성분포도 그만큼 다양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분야로부터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선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직이란 단순한 전문지식을 소유했다고 하여 아무나 수행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특수직이다. 각 분야에 걸친 전문지식을 대중 지식화하는 기술과 방법을 익히며 언론의 파급적 효과를 의식한 투철한 직업 윤리관, 국가관, 사명감 등의 정신적 의지로 무장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신문방송학이 발전하려면 학문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학의 전문교육, 특히 신문방송학 교육은

실제와의 불가분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의 열의와 진보만으로는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현재와 같은 언론기관의 전문교육 외면풍토는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력선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물론 언론기관 나름대로의 애로와 목적이 있는 하겠지만 현재의 모순된 관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기관이 앞장서서 전문언론인 교육의 정상화를 자극시키고 나아가서는 유능한 예비언론인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언론기관의 인력선발 방식은 언론의 전문성과 언론매체의 사회적 국가적 기능면에서 볼 때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점을 많이 안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을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모르되 사회의 공적인 것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수행하는 한 언론매체 소유주의 개인적 편리와 기준에 따라 언론인을 선발하게 하거나 나아가서 그 교육 본질에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전문언론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의 세부사항

언론기관이 전문교육을 받은 예비언론인들에게 직업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는 교육의 전문화와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교육과정의 개선을 전제로 한다. 교육과정 개선은 언론분야의 전문성에 맞추어 전공도 역시 세분화하면서 폭넓은 교양, 체계화된 전문지식,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 개발과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오늘날 전문지식이나 폭넓은 통찰력이 없이는 언론활동을 하기 힘들 만큼 언론이 취급하는 문제점과 내용이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전문지식과 폭넓은 교양과 통찰력을 갖지 않은 사람은 언론인으로서의 직업활동을 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 소통, 의견 형성, 정신문화 계도에 차지하는 언론인의 영향과 비중

을 생각할 때 아무도 언론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인 교육은 풍부하고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취급하는 분야에 관한 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사회에 봉사하여야겠다는 투철한 직업 윤리관과 사명감으로 정신적 무장이 된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1. 기초이론 과목(교양필수 과목)

언론인이 되기 위한 기본교육은 언론인이 산업 사회에서의 대중전달 현상과 관계되는 이론을 터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기관 안의 각 분야에서 전문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교양과 지식을 심화시키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즉 신문방송학도로서 우선 이수하여야 할 교양필수 과목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단순한 기본이론도 중요하지만 전문언론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폭 넓은 교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략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교양필수 과목 범위에 속할 수 있다.

① 철학개론 ② 문화사, 세계문화사 ③ 국민윤리 ④ 한국사 ⑤ 인류학개론 ⑥ 논리학개론 ⑦ 미학개론 ⑧ 심리학개론 ⑨ 사회학개론 ⑩ 정치학개론 ⑪ 자연과학개론(computer 등 포함)

2. 공통필수 과목(언론적 과목)

언론인은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전달기법을 익혔거나 경험을 쌓은 것만으로는 직업활동을 올바로 할 수 없다. 다른 직업과는 달라서 확고한 직업관과 국가와 사회를 위한 봉사자와 정신적 계도자로서의 사명감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를 우선 교육을 통하여 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세계 각국의 교육제도를 보면, 가령 교직에 종사할 사람들은 교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기본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른바 교직과목이라는 과목들이 이에 속한다. 또한 교회의 성직자도 마찬가지로 정신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 조건을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 자세, 소양 등이 있는 만큼 이들을 개발하고 갖추어 줄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과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언론인의 윤리, 직업의식 ② 언론사상과 철학 ③ 한국 언론사 ④ 세계 언론사 ⑤ 비교언론 ⑥ 언론윤리와 법규 ⑦ 언론 연구방법과 조사방법 ⑧ 언론의 과정과 효과 ⑨ 언론과 인간, 사회, 국가와의 관계 ⑩ 취재보도, 뉴스관(觀) ⑪ 실습(각 분야별)

특히 전공선택 과목 조절은 전적으로 대학이나 해당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문제시되고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사항은 기초 과목과 언론적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필수 과목인데 이 분야에서 만큼은 신문방송학과가 설치된 모든 대학이 통일된 선택을 떠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신문방송학 전공자의 부전공 선택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였다고 하여 언론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여 만능언론인 행세를 할 수는 없다. 신문방송학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 정리, 기사화, 문제점 발굴, 여론화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의식과 안목을 넓히고 책임감을 심어주고 기술을 익히게 하는 데 교육적 가치를 둘 뿐이다.

따라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다른 분야를 한 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선택하여 전문지식을 쌓아 그 분야에 관한 전문언론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장차 경제관계의 전문언론인이 되려면 신문방송학을 주전공으로 하되 경제학 내지는 경영학을 반드시 부전공으로 택하여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서 가령 체육전문언론인이 되려면 체육관계의 전문지식이나 실기를 부전공으로 습득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전공자가 취득하여야 할 교과목과 학점에 관하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전공 제도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즉 각 학과마다 타과생의 부전공 선택을 위하여 지정하고 개설한 과목 가운데서 소정의 학점만 이수하면 부전공 이수자로 인정받게 된다.

신문방송학 전공자의 부전공 선택분야는 언론매체가 취급하는 문제영역과 같거나 비슷하면 된다. 즉 정치, 경제, 문화, 체육, 과학, 오락 등으로서 대학에서는 정치학, 외교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역사학, 법학, 심리학, 문학, 예술분야, 기초과학, 체육·보건, 위생학 등의 학과를 부전공으로 택할 수 있다.

현재 신문방송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위에 열거한 분야와 학과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전공 선택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학과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과목과 취득하여야 할 학점수를 정하거나 기존의 부전공 제도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4. 타분야 전공자의 언론계 진출방안: 타분야 전공자의 언론적 과목 선택

오늘날 언론계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나름대로 전문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그에 관한 지식을 풍부히 가지고 있어도 이들을 이른바 “기사화” 하는 훈련과 방법을 조직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터득하지 않고 입사 후 관례와 습관에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우리 나라 언론기관의 “기사화” 혹은 “여론화”하는 방식 내지는 관례는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답습되어 왔을 뿐, 해방 후 아직까지도 우리 실정과 현실에 맞는 방법을 올바르게 터득한 언론인은 별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아무리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대중에게 유익하고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전문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학, 보건·건강 등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장차 전문언론인이 되려면 반드시 신문방송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이는 마치 장차 교직에 투신하려는 사람이 비록 사범대학에 적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범대학의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사자격을 인정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제도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언론인 양성도 이와 같

은 교사양성 방식을 따른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신문방송대학 혹은 언론대학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만 모든 분야의 전문언론인을 양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언론인이 되려는 타분야 전공자는 신문방송학을 반드시 부전공으로 택하여 교직과목과 같은 이른바 언론적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신문방송학을 부전공으로 택한 언론계 진출 지망생들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음은 물론 언론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언론계의 문호를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쌓은 사람들을 위하여 개방하여 언론의 전문화 내지는 언론인의 전문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식영역의 확대와 사회계층의 다양화는 언론의 전문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교과과정의 개선을 통한 각 분야의 전문지식인의 언론계 진출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문언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의 세부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주로 대학내의 문제, 즉 교과목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법만으로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언론인을 양성하고 또한 그들이 확고한 직업 윤리관, 국가관, 책임감을 갖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다. 합리적인 교과과정 개선과 운영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제도적 뒷받침과 언론계의 협조자세이다.

그러면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과 협조가 바람직하며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Ⅳ. 전문언론인의 자격 취득과 언론계 진출 방안

교육기관에서 유능하고 성실한 전문언론인을 양성하더라도 사회, 특히 언론계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전문언론인 교육은 물론 언론

의 전문화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언론이 시대적 흐름에 따르지 못한 중요한 원인들이라면 언론인 양성 교육의 낙후성, 언론인에 대한 인적 투자의 소홀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방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한국 언론의 인적 자원 개발과 투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거의 외부에 의존하거나 우연에 맡기는 실정이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육이나 인적 투자는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걸친 사내연수라는 형식적 교육 내지는 훈련만을 거친 후 실무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기관은 아직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언론인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의 언론은 아직까지도 일체의 잔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언론인의 구태의연한 의식 구조와 이에 따른 "기사화" 방법의 낙후성 그리고 전문지식의 개발과 전달, 전문성을 지닌 문제점에 대한 처리와 공정한 여론형성의 미숙성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경제문제를 취급할 경제전문 언론인을 위하여 가령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을 채용한다면, 혹은 문화부에서 종사할 문화담당 기자를 채용키 위하여 문학이나 예술을 전공하였거나 조예가 깊은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1. 전문언론인의 자격취득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언론계에서 종사하려면 소정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려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이들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교직에 종사하려면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계에 진출하여 언론인으로서 직업활동을 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고 획득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얼핏 생각키에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인의 자질과 언론의 질을 높이고 무질제한 언론계로의 진출을 막고 언론인에게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전문교육을 마친 예비언론인에게 소정의 자격을 부여하

는 일이며 이에 우려되는 단점과 비교할 때 기대되는 장점이 많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과 과정이 제일 큰 관심이 된다.

우선 그 대상에 있어서는 첫째로 신문방송학을 주전공으로 하면서 타분야를 부전공으로 택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과정을 마친 사람이며, 둘째로는 다른 분야를 주전공으로 그리고 신문방송학을 부전공으로 택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들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과정에 관하여는 앞에서 자세히 명시되었다. 이들 교과목이나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언론인 전문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이들에게만 자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서 가령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 혹은 자격고시 같은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과정을 이수하였으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방법이 더욱 바람직하다. 자격을 인정받거나 부여한다는 것은 언론계에서 종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이지 언론인이 되었다거나 으레 언론인이 되는 보장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바꾸어 말해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언론계가 실시하는 선발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요컨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여야만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신문방송학을 주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하되 이른바 "언론직"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각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해야만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2. 자격 취득자의 언론계 진출방안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혜가 주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방안을 알아 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 경영주가 독자적 책임과 관정 아래 언론인에 대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언론인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언론인이 직업 윤리관과

책임감을 확립하는 것도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다만 경영주의 선발기준과 경영철학에 맞으면 언론인으로서 직업활동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생기는 부정적 효과는 사회나 국가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언론인은 사회의 공적 과업을 수행하는 공인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력관리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언론기업은 개인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종사하는 언론인은 경영주 한 개인을 위한 사병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언론인에 대한 인력관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으려면 인력선발 기준과 대상을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언론기관은 반드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입이나 증견사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마치 교육기관에서 교직자를 선발할 때 고용주는 반드시 자격을 인정받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기관의 고용주는 전문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되 선발요령이나 절차는 각 언론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자체조정을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전문언론인의 자격

을 소지하지 못한 사람은 언론계에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례로 내려오고 있는 언론기관의 인력선발 방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경영주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위축되어질 것이라는 점도 없지 않지만 막연한 대상보다는 전문교육을 받고 공인된 자격을 갖춘 뚜렷한 대상을 상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고 보다 유능하고 강한 책임감과 직업 윤리관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되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어떠한 외적 간섭도 있어서는 안되고 오직 언론기관의 의도와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만일 언론기관이 전문교육을 받고 공인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하여 인력선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전문언론인 교육이 아무런 의미도 없음은 물론,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명감 있는 언론인이 제도적으로 양성되고 배출되기란 불가능한 일이며 다만 우연에 기대를 걸거나 지금과 같은 언론인 선발방식의 모순성이 지속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전문언론인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의 성패는 언론기관의 호응도 여하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